

## 정이 있는 마을 신론리

본회 기획홍보부  
이아름 주임

서울의 남동쪽, 경기도의 중동부 지역인 양평군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서울에서 두 시간 이내에 위치한 신론리는 잘 보존된 산림(갈기산과 풍류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갈기산과 풍류산 사이의 신론리 계곡은 물이 맑고 차며 마을의 중앙에는 반딧불이와 다슬기 많은 신론천(혹천)이 흐르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아름다운 마을이다.

신론리는 35호의 가구에 9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2002년 농림부 지정 녹색농촌체험마을, 양평군 지정 반딧불이 마을, 친환경 선도마을로 지정되었다. 모든 농산물이 무농약 인증을 받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청년회, 노인회, 환경농업 선도 농가 등이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와 함께 마을을 이끌어 가고 있는, 푸근한 우리네 농촌을 느낄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 있는 마을이다.

신론리의 중앙에 위치한 1500평의 잔디광장(고론공원)은 주민들이 옛날 사금터를 복원하여 만든 레크레이션 공원으로 파란 잔디 운동장이 넓게 펼쳐져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뿐 아니라 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 다양한 야외활동에도 적합하다. 운동장 주변에는 파고라, 느티나



▲ 1,500평의 잔디광장(고론공원)

무 쉼터 등의 휴게시설과 음수대, 족구장, 바비큐 그릴, 전통 그네 등의 시설이 자리잡고 있으며, 중앙에 위치한 야외 무대에는 엠프시설이 갖

추어져 있어 단체방문객의 행사진행이 편리하다.

숙박시설로는 황토방, 산과들 펜션, 물레방아힐(단체객 숙박시설)등이 있다. 신론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황토방은 전통 한옥식의 펜션형 마을 숙박시설로 구들방 2개와 부엌, 디딜방아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탁 트인 초록빛 잔디운동장이 황토방 앞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좋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안성맞춤이다. 황토 흙벽돌과 기왓장을 사용하고 전통적인 띠살창을 활용한 마감재는 옛 한옥의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나무평상과 느티나무 쉼터는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에게는 시끄럽기만 한 도시와 다른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 준다. 디딜방아 전시관에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제작한 디딜방아와 절구, 떡매 등이 전시되어 있고, 이를 이용한 각종 체험도 가능하다.

신론리는 지난 3월과 4월 귀틀초가집 짓기 행사를 펼쳤다. 마을을 보다 정이 깊어지는 외갓집 체험마을'로 가꾸어 나가는 과정을 마을 주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귀틀 초가집을 만들고, 막국



▲ 신론리의 전통 한옥식 펜션



수 분틀내리기 체험도 하는 과정 동안 방문객들은 마을에 대한 애정이 높아질 수 있었고,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지난 4월 24일과 25일에는 청운 향토마을 축제가 벌



▲ 청운향토마을축제(모내기 행사 과정)

어졌는데, 귀틀도담초가집 짓기, 전통 모심기, 전통 방아 찧기, 장작패기 등의 볼거리 행사, 외갓집 잔치국밥, 부침개 부쳐 먹기, 강냉이 튀겨먹기, 송어 잡아 구워먹기 등의 먹거리, 전통혼례 재현, 추억의 포크 콘서트 등의 문화·예술행사, 짚신 멀리 던지기, 부부 물지게 달리기, 톱질 왕 선발대회 등의 민속놀이, 송어잡기, 새끼 꼬기 대회 등의 즐길 거리, 농산물 경매 행사, 농기계 동물열차 타기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고, 2,000명 이상의 도시민이 참여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인근의 다른 산간 농촌마을처럼 옥수수, 감자, 콩을 심어 팔던 신론리는 농산물을 파는 것 보다 그 과정을 파는 것이 더 경쟁력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30대의 젊은 이장은 서울에서 이사 온 광고기획가, 레크레이션 지도사와 함께 농촌의 '지겨운 일상'을 '돈 되는 관광 상품'으로 프로그램화 하는 노력을 하였고, 마을 주민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은 정겨운 농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도와주었기에 도시민이 농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마을로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신론리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은 크게 4종류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나물 뜯기, 농산물 수확, 짚공예 등의 농촌생활체험, 국궁체험, 투호/그네뛰기 체험, 새총 만들기, 눈썰매 타기 등의 전통놀이체험, 송어 잡기, 메뚜기 잡기, 밤 줍기, 갈기산 등산과 생태 체험 등의 자연생태체험, 장 담그기, 마늘종장아찌 만들기, 떡메치기, 분틀 내려 막국수 만들기, 손두부 만들기, 옛고기 등의 전통음식체험이 그것이다.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있어 언제든지 농촌체험이 가능하며(아래 표 참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체험은 가족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해 준다. 또한 신론리에서 운영하는 가족농장을 분양받을 수도 있어 일회성 체험이 아닌 지속적인 체험도 가능하다.

신론리의 특산물로는 오리쌀, 전통메주, 된장, 표고버섯, 마늘, 더덕, 토종꿀, 콩, 팥, 기장, 수수 등의 잡곡류, 감자, 옥수수 등이 있다. 오리쌀은 모내기부터 추수, 건조, 탈곡, 과정을 마을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밭고 사갈 수 있게 하며, 메뚜기 잡기 행사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 주민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시기	체험내용
봄	산나물뜯기, 장담그기(3월)
여름	각종 농산물 수확, 송어잡기, 마늘종장아찌만들기(6월)
가을	각종 농산물 수확, 메뚜기 잡기, 밤 줍기
겨울	짚공예, 눈썰매 타기,
연중	국궁체험, 투호체험, 그네뛰기 체험, 새총만들기, 갈기산 등산과 생태체험, 떡메치기, 분틀내려 막국수 만들기, 손두부 만들기, 옛고기

▲ 신론리 계절별 체험 가능 프로그램

만들고, 운영하여 도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론리, 도농교류를 계획하는 마을과 지역들에서는 자기 마을의 조건을 먼저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신론리의 예를 참고하면 보다 효과적인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㉞

(신론리 홈페이지 : [www.sinnon.net](http://www.sinnon.net))